

“봉사활동 하면 인성교육은 저절로”

■ 8년째 이웃사랑 실천 석산고 ‘학부모 봉사단’ 학생·교직원과 함께 ‘놀토’ 마다 복지시설서 청소·배식돕기 나서

광주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8년째 지역 내 복지시설들을 찾아 다니며 봉사활동을 통한 이웃사랑은 물론 자녀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실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시 남구 석산고(교장 구희연) 학부모들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학생 및 교직원들과 함께 복지시설로 봉사활동을 떠난다.

이들이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곳은 3년전 자매결연한 나주시 노안면 무등정신요양원을 비롯 광주시 남구 월성동 한희그린실버요양원 등 5개 복지시설.

지난 2002년 20여명의 봉사 동아리로 시작한 석산고 학부모봉사단은 해가 거듭할수록 참가자가 늘어 지금은 학부모 회원 수만 188명에 이른다.

봉사단 규모만 보더라도 광주·전남에선 단연 1위고, 전국에서는 두 번째다.

지난 한해 동안 이들이 봉사활동을 다녀온 횟수만 30여회. 지난해 7월에는 ‘봉사활동의 성지’로 이름난 충북 음성 꽃동네를 찾아 봉사활동의 참맛을 되새기기도 했다.

김혜정 봉사단장은 “학생들과 교직원이 함께 시설을 찾아 청소와 배식돕기, 말벗 돼주기, 손·발톱 손질 등을 해주고 때론 TV와 옷, 과

일, 화장품 등을 선물하기도 한다”며 “비용은 봉사단원 스스로 후원금을 내거나, 교내에서 불우이웃 돕기 행사 등을 열어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주간 공부에 매달리다가 주말

이런 마지못해 따라나섰던 학생들도 이제는 방학 등으로 봉사활동이 잠시 중단될 때면 ‘봉사활동을 대충해도 되는 건가요?’라고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항의(?)를 하기도 한다.



지난해 나주시 노안면 무등정신요양원을 찾은 석산고 학생들과 학부모 봉사단이 환자들에게 ‘바디 페인팅’을 해주고 있다. 손등과 팔에 정성들여 꽃을 수놓자 환자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가득 피었다.

석산고 2학년 이호진(18)군은 “요양시설에서 만난 할머니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라줬을 때 ‘하늘을 나는 것 같다’고 좋아하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처음엔 시간을 채우려고 갔지만, 이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보고 싶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학교 봉사단에 적극 참여하는 이유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좋은 품성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시설로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봉사하는 시간동안 학생과 부모 사이에 절로 이야기 꽃이 피어 자녀와 대화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무시할 수 없는 즐거움이다.

석산고 학부모봉사단은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최근 한국시민자원봉사회로부터 단체부문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기쁨도 누렸다. 현재 전국에는 50여개의 학부모 봉사단체가 활동 중이다.

구희연 석산고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하나가 되어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인성과 학력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가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기부천사 초밥왕’ 배정철씨 올해도 역대 치료비 내놔

장성 진원면 출신



원 이상의 초밥을 기부하는 한편, 월평균 400여명의 독거노인들에 대해 식사대접을 하고 있다.

‘기부천사 초밥왕’으로 널리 알려진 배정철(47·사진)씨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불우환자들을 돕기 위해 역대 최고의 치료비를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본보 2008년 7월 5일자 1면)

6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일식집 ‘어도’를 운영하는 배씨와 아내 김선미(여·42)씨는 이날 병원 후원모임인 환친후원회를 찾아 얼굴기형 어린이와 성인 불우환자들을 돕는데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했다.

배씨 부부는 1999년 기형 어린이의 치료비에 써달라며 3천만 원을 낸 뒤로 시작해서 매년 1천500만원 가량의 성금액을 늘린 끝에 지난해까지 총 6억4천900만 원을 후원회에 기부했다.

배씨 부부는 또 매년 서울대병원에서 열리는 자선바자회를 통해 1천만

배씨 부부가 이같은 선행을 이어가는 것은 힘겨웠던 시절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받은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잊지 못해서다. 배씨는 장성군 진원면 출신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홀어머니와 상경해 끼니를 거를 정도로 힘겨운 시절을 보냈다.

배씨는 “어렵게 살았던 젊은 시절 주위 사람들로 부터 받은 위로는 정말 큰 힘이 됐다”며 “얼굴기형 어린이들이 돈이 없어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한다는 병원 교수의 말씀을 전해들은 뒤로 기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집유로 풀려난 30대 남성 다른 범죄 혐의 투신 자살

6일 오전 6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김모(33)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A(6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아파트 20층 복도 창문을 열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가 지난해 말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최근 남의 카드를 쓴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목포해양대 총장 임용 무산 추병직씨 ‘공직윤리법 위반’

제5대 목포해양대 총장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추병직 전 장관의 총장 임용이 무산됐다.

6일 목포해양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회를 열어 목포해양대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교과부는 이날 공문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2인 이상의 총장 임용 후보자를 선출해 재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직자는 퇴직 후 영리단체나 협회에 취직할 수 없는 데도 추 후보는 건교부 장관에서 퇴임한 뒤 건설단체연합회 고문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돼 인사위원회에서 재추천하도록 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목포해양대는 총장 임용 관련 공고를 내고 4월말께 재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lsee@

흙진 휴대전화로 폰팅하다 ‘덜미’

○“절도 등 전과 10번인 노년(?)한 20대 남성이 흙진 휴대전화로 폰팅을 하던중 성인인증과정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는 실수를 저질러 경찰서로.

○“광주남부경찰은 6일 광주와 충북 청주 등 전국을 무대로 병원과 학원, 교회 등에 침입해 금품을 털어 22·청주교도소 수감)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1월 18일 새벽 4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유촌동 J병원에서 몰래 들어가 현금 30여 만원을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120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경찰은 엄씨가 흙진 휴대전화로 수신택서 ‘폰팅’을 하던중 성인인증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남긴 사실을 포착, 다른 절도 혐의로 충북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엄씨를 추가로 입건.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가정집서 역대 현금 털러

대낮 3인조 강도 공개수사

광주에서 설계회사를 운영하는 40대 사업가의 집에 3인조 도둑이 들어 순식간에 역대의 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대낮에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30여분 만에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훔쳐간 점으로 미뤄 내부사정을 잘 아는 면식범이나 전문금고털이범의 소행으로 보고 공개수사에 착수했다.

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경 광주시 동구 계림동 K 아파트 김모(44)씨의 집에 3인조 절도범이 침입, 인방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억5천여만원과 금반지 등 3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조사 결과 용의자들은 침입한 지 불과 30여분 만에 금고를 털고 범행에 쓰던 도구까지 모두 챙겨 달아났으며, 금고 속 봉투에 들어있던 1천만원권 수표 10장에는 손도 대지 않

았다. 용의자들은 금고를 부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외부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금고에 이불을 덮어 씌우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보였다. 이들은 속칭 ‘빠루(노루발 못 뽑기)’를 사용해 현관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화면 등에 잡힌 용의자들의 모습을 토대로 공개수사에 착수했다. CCTV 분석 결과 용의자들은 20~30대 남성들로 추정되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10월 거래 은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찾은 현금을 은행에 다시 입금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간에 현금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 집안 금고에 현금을 보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용의자들 중 한 명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 1점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범행 당시 사건현장에서 통화한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새학기, 공부 열심히 해야지 ...

6일 조선대 생활협동조합내 서점에는 새 학기를 맞이 전공·교양과목 서적 등을 구입하려는 학생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같은 택시 또 탔다가...

10만원권 위조 수표 대량 복사해 쓰다 ‘덜미’

광주북부경찰 20대 여영장

휴대용 복사기로 위조한 수표 100여장을 전국 각지에서 사용한 20대 여성이 자신이 위조수표를 썼던 택시에 다시 타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6일 10만원권 위조수표 100여장을 만들어 사용한 위조수표 100여장을 만들어 사용한 위

모(여·23)씨에 대해 유가증권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광주시 북구에서 10만원권 위조수표를 사용한 뒤 최근까지 4개월간 위조수표 100여장을 만들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위씨는 광주와 목포, 서울, 동해, 대구 등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편의점이나 약국·속옷가게·음식점 등에서 위조수표를 쓰고 기스름돈을 받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위씨는 또 덜미 복사가 가능한 복합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새로운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다며 휴대폰을

쓰지 않고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주로 이용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그러나 위씨는 최근 자신이 위조수표를 사용한 택시에 다시 타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위씨는 지난 1월 14일경 영암에서 택시기사 조모(45)씨에게 택시비로 위조수표를 건넨 뒤 50여일 뒤인 지난 4일 밤 다시 영암에서 같은 택시를 탔다가 조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위씨가 속시비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횟수와 수법 등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5분 해질 18시 33분 달돋이 14시 15분 달짐 04시 09분

큰 일교차 맑은 후 밤부터 흐려지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은 뒤 흐림	-2/12C
목포	맑은 뒤 흐림	0/9C
여수	맑음	1/11C
완도	맑음	0/12C
구례	맑음	-4/12C
해남	맑음	-2/11C
장흥	맑음	-3/12C
고흥	맑음	-4/12C
순천	맑음	-1/11C
영광	맑은 뒤 흐림	-3/9C
진도	맑음	-1/11C
전주	맑은 뒤 흐림	-4/11C
남원	맑은 뒤 흐림	-5/12C
속산도	맑은 뒤 흐림	1/7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서	1.0~2.5m	목포 11:24	03:48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서	1.0~2.5m	목포 23:29	17:08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동	1.0~2.5m	여수 06:31	12:58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동	1.0~2.5m	여수 18:51	---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8(일)	9(월)	10(화)	11(수)	12(목)	13(금)
날씨						
최저/최고	2/13	2/12	1/13	1/13	3/11	1/10

쌀쌀한 날씨 ... 외출땀 옷차림 주의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일교차가 큰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7일 광주·전남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고 6일 예보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영상 1도로 전날보다 3~9도 떨어져 광주위가 예상된다. 낮기온은 9~12도로 전날보다 다소 높아 일교차가 크겠다.

도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6일 오후에는 여수와 장흥, 해남, 완도, 목포, 신안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동구 금남로 4가역에서 바람에 날라온 양철지붕이 주차된 차량 3대를 덮쳐 차량이 크게 파손됐다. 한편 기상청은 지난 2월 광주·전남의 평균기온이 5.6도로 평년보다 3.2도 높고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선박 조난위치 자동발신장치

10대 중 9대 ‘오작동’

초기대응 실패 구조활동 애로

선박에 장착된 ‘조난위치 자동발신장치(EPIRB)’ 10대 중 9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최근 신안군에서 발생한 정진호 실종 사건 등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6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해 1년간 EPIRB의 수신건수 224건 가운데 206건이 기계의 오발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신 건수의 92% 수준으로, 선박에 장착된

EPIRB 10대 중 9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EPIRB의 수신건수 가운데 실제 조난신호는 18건(8%)에 그쳐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25일 신안군 가거도 공해상에서 실종된 300kg 압향선 정진호도 EPIRB가 작동하지 않아 초기 대응은 물론, 실종 선원 구조와 수색 작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